

“민주당, 한국당 떼쓰기에 굴복…선거제 개혁 물거품”

손학규·정동영·이정미 야3당 대표, 정론관 기자회견서 지적

“민주, 정개특위 맡아 선거제 개혁 처리…한국당에 넘어가면 좌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려는 한국당의 침입자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더 이상 굴복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은 (지난해 합의 이후에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했다”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 3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순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옮겨놓는 데 성공했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합의 행보에 대해 “저희 야 3당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앞당기는 국민들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의 책임은 완수를 위한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합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원내 선택권을 가진 원내 제1당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을 앞세우며 사개특위 위원장 봇을 백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함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8월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 3당 대표들은 아울러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단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길 기대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자리”

라며 “정개특위가 한국당에 넘어가니는 건 단식 농성을 했었고 한국당

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면서 폭력 난투까지 벌여 어렵게 관찰시킨 패스트트랙을 다 무위로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임이 불보듯 뻔한데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나. 그에 합당한 내용”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핵심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8월 안에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인가 인데 이것은 합의 후에 따라오게 될

문제”라고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당의 원총회에서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넘겨주게 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공수처)와 선거제 개혁 포기, 개혁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에 관한 질문에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론 물 건너간다”며 “그러면 개혁 제로 정권이 될 것이다. 선거제 개혁 없이 어떤 다른 개혁 입법도 같이 처리될 수 없어서 그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초월회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위원장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길 정중히 요구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에 정개특위 맡아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손 대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심상정 위원장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대선주자 지지율, 이낙연-황교안 박빙의 ‘투톱’

이재명, 9.3% 지지율 3위
4위 김경수-5위 홍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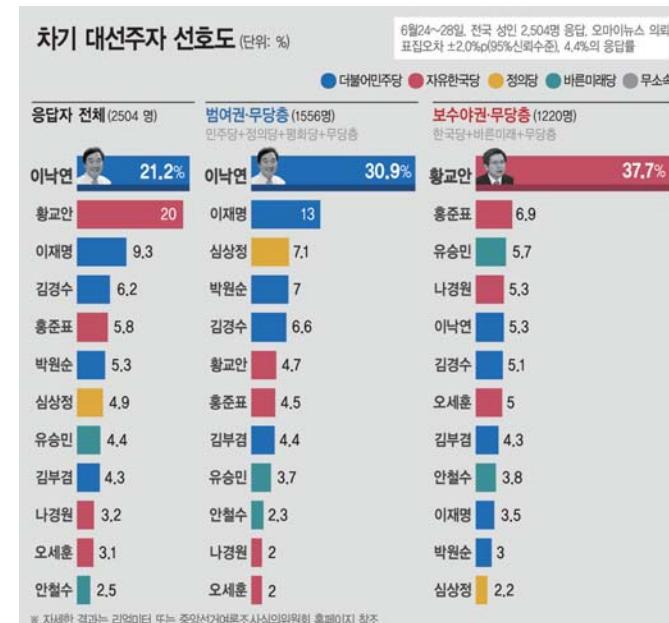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빙의 양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선호도가 하락했으며 이 총리는 6개월 만에 1위에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2인을 대상으로 6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총리가 5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21.2%의 지지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총리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4%포인트 내린 20.0%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지속했



던 상승세가 꺾이며 2위로 한 계단 내려 앉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0.8%포인트 내린 9.3%로 3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4%포인트 오른 6.2%로 4위,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1.3%포인트 오른 5.8%로 5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0.6%포인트 오른 5.3%로 6위를 기록했다.

이 번 조사는 지난 달 24~28일 전국 19 세 성인 5만 7406명 중 2504명이 응답해 4.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훈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일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뉴시스

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훈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일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최근 한국당이 작업 중인 내년 총선 공천 기준 마련 등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탈당해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홍문종 의원 등 보수 분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흥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등 한국당 출신 의원들과의 보수대통합에 관한 논의를 했을 것

이리는 관측이 더해진다.

한편 한국당이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친박공천 배제, 청년·여성 등 새 인물 수혈 등의 내년 총선 공천 룰이 가시화되자 당내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뉴시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